

과학기술의 힘으로

나라의 종합적국력과 지위는 결코 영토의 크기나 인구수, 물질적부, 지적학적위치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에 의하여 규정된다. 과학기술이 뒤떨어지면 광대한 영토와 풍부한 자원도 빛을 잃게 되고 가난과 락후, 예속과 굴종을 면할수 없다는것이 력사와 현실이 보여주는 철통이다.

오늘 공화국이 지향하는 자립적이며 강력한 경제발전은 과학기술에 의하여 담보되고 실현되어가고있다.

얼마전 주체비료생산기지로 훌륭히 일떠선 순천리비료공장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자체의 원료와 자원, 기술에 의거하여 고농도린안비료를 대량생산하는 이 공장은 원료투입으로부터 제품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이 자동화, 흐름선화되어있고 에네르지절약형, 로력절약형, 환경보호형으로 이루어진 화학공업부분의 본보기, 표준공장이자이다.

순천리비료공장이 건설됨으로써 알곡생산은 훨씬 늘일수 있는 밝은 전망이 열리게 되었다.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압박과 악성비투수전염병으로 인한 세계적인 대재앙속에서도 이렇게 하나의 새로운 공업분야를 창설하는것과 맞먹는 현대적인 린비료생산기지를 일떠세운것은 과학기술의 튼튼한 안받침이 없이는 이루어질수 없는 기적적인 성과이다.

오늘 공화국에서 과학기술은 최대로 중시되고있다.

과학기술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3대기둥의 하나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가의 정책적문제들이 토의되는 회의들에서 과학기술을 앞세우고 그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진행해나갈때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특히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 제7차대회에서 과학기술강국의 전모와 그 건설의 목표,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전략적호를 제시하시고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건설에서 나서는 대책적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지난해 4월에 진행된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는 사회주의건설에서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재인명하고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밝힌 력사적인 계기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온 나라에 과학기술중시기풍이 차넘치고 과학기술발전과 교육사업에 전국각적인 힘이 집중되였다.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가 늘어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첨단과학기술로 세차게 벌어졌으며 과학기술과 경제의 일체화를 다그치는 사업도 힘있게 추진되였다. 또한

국가인재증시정책에 의해 교육부문에서도 전반적12년제교육목적이 새로 확립되고 교육의 내용과 방법, 체계에서도 커다란 전환이 일어났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어느 단위를 찾으시여도 과학기술보급기점들을 돌아보시며 근로자들을 지식경제시대의 주인공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지난해 10월 어느 한 시험농장을 돌아보실 때에도 어느 단위, 어느 부문에 가거나 늘 강조하는것이지만 우리가 믿을것은 과학기술의 힘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기풍을 확고히 견지하며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자기앞에 나선 과업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려는 과학기술중시관점과 일본새를 국풍으로 펼쳐히 확립해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열렬한 애국심을 지니고 고심어린 탐구와 노력으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 군력강화에 이바지하는 과학자, 기술자들을 나라의 보배로 아끼고 믿어주시었다.

몇해전 6월 어느 한 연구기관을 찾으면서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혹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한생을 바치고있는 이런 과학자들을 만났을 때면 자신께서 정말 행운을 타고났것 같다고 하시였고 또 언젠가는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은 금방석에 앉혀준다 는 말이 있는데 우리의 과학자들에게 금방석과 같은 집을 지어주어 거기서 생활하게 하자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었다.

수많은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한낱한시에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하도록 해주시고 조선로동당이 떨리는 당중앙위원회의 청사앞에서 력사에 길이 빛날 별의 화폭을 남기시였으며 성대한 연회도 마련해주시고 과학자, 기술자들의 성과를 축하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었다. 그뿐이 아니다.

명당자리에 훌륭하게 일떠선 위성과학자주력지부와 은하과학자거리, 연평과학자휴양소와 미래과학자거리, 과학기술전당 등 은하과학자주력지부와 은하과학자거리, 연평과학자휴양소와 미래과학자거리, 과학기술전당 등은 대가님비적창조물들, 방방곡곡에 늘어나는 현대적인 본보기, 표준공장과 사회주의바다항기를 불러온 황금해의 새 력사...

지난해 농업부문에서 불리한 기상기후가 계속된 조건에서도 최고수확년도수준을 돌파하고 중평년내은실농장과 양묘장이 현대적으로 일떠설수 있었던것도 공화국의 튼튼한 과학기술력량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12월에 있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도 오늘 우리가 의거할 무진강한 전략사안은 과학기술이라고 하시면서 지금과 같이 경제사업에서 애로가 많을 때에는 과학기술이 등불이 되어 앞을 밝히고 발전을 선도해나가야 할것이라고 하시였다.

공화국의 현실은 자력강성의 위대한 정진에 과학기술이 안받침될 때 뚝지 못할 난관이란 없으며 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 승리 승리의 기발을 자랑스럽게 휘날릴수 있음을 웅변해주고있다.

공화국은 어제도 오늘도 그러하지만 앞으로도 과학기술을 비약의 보폭으로 틀어쥐고 국가의 강성한 위상을 더 높이 떨쳐갈 것이다.

오늘도 세계무대에서는 자주와 정의의 유린하는 제국주의, 지배주의의 강권과 전횡이 그치지 않고있다.

외세의 침략위협으로부터 나라와 인민의 존엄과 안위를 지키자면 군력이 강해야 한다. 이것은 어제날이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진리이다.

군력이자 국력이자이다.

돌아켜보면 19세기말-20세기초 이 땅은 령강들의 각축전장이 되고 전황터로 화해하였다. 나라가 힘이 약한 결과 초래된 비극적현실이였다.

나중에는 신식무장을 갖춘 섬나라의 오랑캐들이 달려들어 나라를 내놓으라고 강박해도 변변히 맞서싸우지도 못하고 국가주권과 령토를 통째로 빼앗기지 않으면 안되였다.

힘없는 나라와 민족이 당하는 불행과 재난은 이루 헤아릴수 없다.

20세기말-21세기초에 발칸반도와 중동지역 나라들에서 빚어진 류혈참극들도 아무리 발전된 경제력과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있다고 해도 강력한 자위적힘이 없이는 자기 나라와 인민의 자주권과 생존권, 지역의 평화를 지켜낼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대국들을 쳐다보면서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지 않고 서방의 압력과 회유에 걸리지 이미 있던 전쟁억제력이 저조하면 종당에는 침략의 희생물이 되고만다는 피의 교훈도 남기였다.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도처에서는 군력이 약한탓에 령토가 외국군대의 군화발에 짓밟히고 전쟁과 내전의 화염이 치우아오르고 삶의 터전을 잃은 수천수만 의 피난민들이 타향으로, 낯설은 이국으로 떠나가는 구슬픈 행렬이 그칠새없이 이어지고있다.

말로는 지킬수 없고 구걸로도 이룩할수 없는것이 나라의 존엄이고 인민의 안녕과 평화인 것이다.

오늘 공화국이 적대세력들의 잔인무도한 제재와 위협, 압살

책동속에서도 굴함이 없이 자기 인민이 선택한 자주와 정의의 한길로 힘차게 나아가고있는 것은 다름아닌 군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비결은 다른데 있지 않다. 탁월한 령도자를 모신데 있다. 어떤 령도자를 모시는가 하는 것은 그 나라, 그 민족의 존엄과 위상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된다. 탁월한 령도자를 모시면 약했던 나라와 민족도 강해지지만 그렇지 못하면 어제날에 지녔던 높은 존엄과 위상이 지워져 마려이라는것을 지나온 인류사는 가르쳐주고있다.

존엄은 자주의 나라, 불패의 군사강국.

세계가 놀라고 부러워하는 조선의 이 지위와 위력은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령군술,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을 모시며 공화국이 누리는 특전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시련과 난관이 중첩될수록 더욱 굳건한 자주적신념과 의지를 버리시며 남들이 20년, 30년이 걸려도 해내지 못하는 국가적대업들을 짧은 몇년어간에 다계단으로 이루어내시였다.

낯과 발이 따로없이 군력강화를 위한 중대사업들을 구상하시고 위협천만한 화신결을 걸으신 불면불욕의 헌신속에 오늘 공화국의 군사력이 백방으로 다져진것이다.

지난해에도 삼지연시와 양덕, 중평땅에 인민을 위한 재부들이 일떠서고 얼마전에는 순천리비료공장건설이 완공되는 등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인 성과들이 련속 이룩되고 있는것도 평화를 굳건히 수호해주는 강위력한 군력이 안받침되어있기때문이다.

나라의 군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우리는 세세년년 평화의 푸른 하늘이 펼쳐져있게 될것이다.

변함없는 진리

림명호



순천리비료공장

매혹과 흠모

한없이 세심하신분

경애하는 원수님은 창조의 거장이다. 그이께서 펼치는 일은 모든것이 거창하고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거리를 하나 일떠세워도 미래과학자거리나 려명거리처럼 웅근 하나의 도시를 방불케 하듯 거창하게 작전하시고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세우도록 해주신다.

이렇게 모든 일을 통이 크게 설계하고 내미시면서도 작은 세부도 놓치지 않으시고 가르치심을 주시는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이다.

그이께서 얼마나 세심하신분이신가 하는것은 인민을 위해 현대문명이 응축된 양덕온천문화휴양지를 꾸려주도록 하시면서도 뜨끈한 온천물로 닭알을 삶아먹는 장소까지 마련해주시는 다심한 은정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지난해 인민들의 문화휴양지로 천지개벽된 양덕군의 새집들을 본 한 해외동포 녀성은 글에서 이렇게 심정을 토로했었다.

《...살림집에는 고운 도배종이를 바른 살림방들과 깨끗한 세면장은 물론 쓰기 편리하게 지은 창고와 집집승우리도 있었다. 방에는 이불장, 옷장을 비롯하여 생활에 당장 필요한 가구들이 준비되어있었고 부엌세간들도 마련되어있었다. 부엌이 궁이앞에는 새 주인이 쓸 썰나무를 준비해두었고 부엌창고에는 울겨울을 날수 있는 충분한 량의 석탄도 쌓아두었다.

당시 주민들을 위하여 집만 지어놓은것이 아니라 입주자들을 어떻게 하면 더 크게 해줄가를 고심하며 섬세하게 준비한것들이다. 당일군들의 마음이 꼭 자녀에게 첫 살림을 퍼주는 어머니의 마음같다.

북에는 인민을 하늘처럼 귀하게 여기는 최고지도자가 있고 인민의 생활을 어머니처럼 섬세하게 보살피는 당이 있으며 이런 최고지도자와 당을 진심으로 받드는 인민들이 있다.》

흠은 말이다. 공화국에서 사는 남로서고 그 누구에게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사랑의 손길이 가닿고있고 이 땅에 일떠서는 모든 창조물들마다에 그이의 세심한 령도의 손길이 미치고 있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창건거리에 일떠선 초고층아파트의 맨 윗층인 45층에 오르셨을 때였다.

몸소 집주인이 된 심정으로 방랑과 부엌 등을 돌아보시던 그이께서는 배란다에 나서시였다.

대동강을 따라 한쪽의 그림처럼 펼쳐진 아름다운 평야의 전경을 한눈에 굽어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문득 바람소리가 들린다고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이 정신을 가다듬고 귀를 강구고 들어보니 창문가에서 들릴까말까한 바람소리도 울려나오고있었다.

초고층이어서 바람이 센것은 응당할것이라고 여기는 일군들에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바람이 불어오면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수 있다고 하시면서 바람 한점 스며들지 않게 창문틀에 바람막이를 잘할때 대하여 거듭거듭 강조하시였다.

도 언젠가 건설중에 있는 문수물놀이장을 찾으시였을 때에는 실내물놀이장의 천정을 바라보시다가 채광이 잘되어 여름에는 물이 더울수 있다고 하시며 햇빛

을 막을수 있는 차일풍을 설치해주어 인민들이 물놀이를 하다가 나와 그늘에서 휴식도 하게 해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이뿐이 아니다. 인민들의빙상장을 찾으시였을 때에는 그 누구도 생각 못했던 스케트날을 갈아주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는데 대해 일깨워주시였으며 룡라인민유원지를 찾으시어서는 물놀이장에 응급치료를 할수 있는 치료실과 감시대도 꾸려주어 사고가 나면 구조를 할수 있는 대책도 세워줄때 대하여 일일이 가르쳐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이다.

또 어느 한 살림집을 돌아보시면서는 위생실바다에 물을 부어보도록 하시어 바닥의 물때도 가해보시고 현대적으로 꾸려진 어느 한 교실을 돌아보시면서는 책상우편의 흠을 파우어 책상우편인 연필이나 원주필 같은 것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할때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지금 수도의 중심부에 건설되고있는 평양종합병원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렇듯 세심하고 따사로운 령도의 손길아래 날이 갈수록 자기의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고있다.

그 누구나 감동을 금치 못해하는 그이의 섬세함도 그 기초에는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놓여있다. 인민을 하도 극진히 사랑하시는 분이여서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창조물들과 세부들에는 자그마한 티도 없어야 한다고 여기시며 그렇게 세심히 관심하시고 일깨워주고 계시는것이다.

본사기자 유금주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것

해방직후인 주제34(1945)년 12월 어느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보진군(당시)의 한 책임일군을 부르시어 재정국(당시)에 제기한 방역자금문제가 해결되었는가고 물으시였다.

며칠전에 보진군에서는 당면한 방역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재정국에 청구한바 있었는데 그이께서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시는것이였다.

제기한 자금문제가 그날까지도 풀리지 않았다는 대답을 들으신 이비이수령님께서는 자금의 수모를 알아보시고 곧 재정국의 한 일군을 부르시였다.

잠시후 재정국의 일군이 방에 들어서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 게 보진군이 제기한 자금을 대줄수 있는것이가고 물으시였다.

재정국의 일군은 인민들의 건강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는 그이의 높은 뜻을 모르느바가 아니였으나 나라의 재정사정이 너무도 긴장하여 선뜻 대답을 올리지 못하였다. 사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의 재정행편을 모르고 물으시는것이 아니라라는것을 그 일군은 잘 알고있었다.

근 반세기동안 조선의 경제행편을 돌리려고 수많은 재물을 강탈해간 일제가 폐망하면서 남긴것이란 우리 인민의 고향로 얼룩진 장부책과

링 빈 금고뿐이었다. 말그대로 빈터에서 경제를 복구하고 새 나라를 건설해야 했던 그때 어디에서나 요구되는것이 자금이었었다.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방역시설을 갖추는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해방을 갖 맞은 오늘 우리 나라의 형편은 외부로부터 전염병이 들어올 위험성이 매우 많다, 만일 무서운 전염병이 들어와 퍼진다면 우리는 많은 인명피해를 입게 될것이다, 세상에서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것이 또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가 좀 곤난이 있더라도 우선 이것부터 해결해주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미 계획된 대상에 대한 투자예산을 일부 메서라도 방역자금만은 꼭 보장해주어야 하겠다고 거듭 강조하시였다.

해방직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돌려주신 거액의 방역자금!

여기에는 지난날 나라를 빼앗기고 갖은 고역과 질병으로 고통을 겪어온 인민들을 전염병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그들이 새세상에서 건강한 몸으로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시려는 위대한 어머니의 한없이 뜨거운 인민사랑이 담겨져있었다.

본사기자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 이것은 세계의 다른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조선에서만 불리우고있는 시대어이다.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는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졌다는 숭고한 사명감을 지니시고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과 의지이다.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는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는것을 최대의 중대사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해서는 천금의 재부도 아끼지 않으므로 지어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며 헌신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며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신다.

인민을 위한 길에 한몸이 그대로 모래알이 되어 뿌려진대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것이 그이의 인생관이고 인민들이 쓰고갈 모든것이 어 그것이나 다 완전무결하고 최상의것이여야 한다는것이 그이의 높은 요구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인민을 위하여 사시는분, 인민에 대한 사랑을 천명으로 지니신 령도자이시이다.

예로부터 위인에 대해서는 사상리론의 독창성과 령도력, 천리해안의 예지, 령장으로서의 지략과 담력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측면에서 논하여왔다고 할수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은 어떤분이신가.

오늘 세계의 곳곳에서 울려나오는 이 물음에 다 대답하려면 끝이 없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인민을 제일로 사랑하는 령도자이시라는것이이다.

그이께서 지니신 비범한 사상리론이나 탁월한 령도력, 령장의 담력과 배짱, 천리해안의 지략은 모두 인민의 행복을 꾀꾸우고 지키는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로 지향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의 자욱이 나라의 방방곡곡에 새겨져있다.

지금으로부터 4년전 5월 어느날 그이께서는 지하초연수에 의하여 소금을 생산하는 한 제염소를 찾으시였다.

바다물로 생산한 소금에 비하여 맛이 좋으며 칼리움과 요드함유량이 많고 중금속함유량이 적은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건강증진에 가치가 있는 소금을 인민들에게 안겨주게 되신 그이의 기쁨은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었다.

소금더미에 다가가시어 소금맛을 보신 그이께서는 소금맛이 참 좋다고, 부드럽고

쓴맛이 전혀 없다고 하시면서 정말 호맛하다고, 자신에게는 소금더미들이 백금산으로 보인다 하시였다.

인민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생산현장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소금의 맛도 친히 가해해보시고 소금더미를 백금산에 비겨 말씀하시였는가.

경애하는 원수님은 인민들에게 가닿게 될 행동저장고의 물고기블록도 금피처럼

손맛이 전혀 없다고 하시면서 정말 호맛하다고, 자신에게는 소금더미들이 백금산으로 보인다 하시였다.

인민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생산현장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소금의 맛도 친히 가해해보시고 소금더미를 백금산에 비겨 말씀하시였는가.

경애하는 원수님은 인민들에게 가닿게 될 행동저장고의 물고기블록도 금피처럼

본사기자 고성호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조국통일운동의 출발점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운동을 우리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하루빨리 성취하기 위하여서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민족자주는 조국통일3대헌장에 관통되어있는 기본정신이며 통일운동의 출발점이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민족의 권리와 이익을 수호할수 있고 민족의 운명을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조국통일운동은 마땅히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이룩해야 할 자주위업이다.

조국통일문제가 우리 민족자신의 문제이며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인것만큼 우리 겨레가 주인이 되어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자주적으로 이룩해나가는 것은 당연하다.

조국통일운동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외세에 의존하여서는 어느때도 가시도 나라의 통일문

제를 해결할수 없다.

자기 민족의 운명을 다른 누가 대신해서 개척해주시지 않는다. 민족이 아니며 자체로 조국통일을 하고 나라를 풍하게 하는 사상적합이라면 사대주의와 외세의존사상은 민족을 비굴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상적독소이다.

외세는 우리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어 강대해지는것을 결코 바라지 않으며 오히려 양으로 양으로 갖은 방해책동을 일삼아왔다.

조국통일문제를 외세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것은 예속의 율가미를 스스로 목에 거는것이나 다름없는 어리석은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찾자리에 놓고 민족문제, 통일문제해결에서 자주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나아가야 한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려는 투철한 관점과 립장, 든든한 배짱과 자신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민족은 힘이 약하여 외세에 국권을 빼앗기고 망국과 분열을 강요당하였던 어제날의 약소민족이 아니며 자체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는 슬기롭고 힘있는 민족이다.

은 겨레는 우리 민족을 영원히 갈라놓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지배자로 군림하려는 외세의 간섭과 침해를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민족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어기저기 들고다니며 외세에 구걸하는것은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팔아먹는 매국배주행위이며 반통일행위이다.

조국통일은 그 누구의 승인을 받고 하는것이 아니며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것도 아니다. 승배를 해도 자기 민족을 송배하고 믿어도 자기 민족의 힘을

민어 한다.

은 민족이 힘을 합치면 이 세상 못해낼 일이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립장에 서서 전민족적위업인 조국통일의 대의에 모든것을 복종시키고 지향시켜나아가야 한다. 이와 함께 민족자주의식을 쫓고 민족자강력을 마비시키는 사대와 외세의존을 철저히 반대배격하여야 한다.

겨레의 지향과 요구는 민족을 동진자들의 통략물이 될수 없으며 자주통일로 나아가는 시대의 흐름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다.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자주를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으로 든든히 틀어쥐고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감으로써 존엄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이 땅우에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최광혁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위하여

을려나는 민족자주의 열망

남조선에서 외세의 배후조종밑에 일어난 5.16군사쿠데타는 뒤흔들리는 식민지파쇼 통치를 총칼로 유지하기 위한 범죄적인 책동이였다.

외세의 막후지지를 받으며 땅크와 장갑차들을 내몰아 군사정변을 단행한 박정희 군사와파쇼당은 《국회》를 강제해산하고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시키였으며 군정통치를 실시하였다. 모든 진보적정당, 사회단체들은 폭력으로 해산되고 진보적인 언론출판기관들은 모조리 폐쇄당하였다.

과소적탄압의 주되는 창고는 남조선에서 급격히 양양되고 있던 민족자주통일운동을 탄압하는데로 돌려졌다. 군사독재(정권)은 반공을 《국시제일주의》, 《최고의정적가치》로 내세우고 진보적사회세력 그리고 외세의 식민지에 속화정책에 장으로 되는 모든 사회정치적요소를 대한 파쇼적탄압을 감행하여나섰다.

이로부터 당시 남조선에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의 마수에서 벗어나 민족적자주권을 되찾으려는 투쟁기운이 더욱 고조되었고 각계에서는 민족자주를 지향하고 조국통일을 념원하는 목소리들이 높이 울려나왔다.

이를 반영하여 남조선출판물들에는 민족자주를 주장하는 론조들이 대두하였다.

《자주정신, 자주판단 그리고 자주처리란이 양보할수 없는 대원칙》

《주체성의 확립이란 외부로부터의 정치적간섭의 배제를 의미하며 이는 정치적자유의 획득을 의미한다.》

《주체성은 언제 어느때나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고수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몇몇대의 밀가루와 몇몇의 딸라를 더 얻어보기 위해서 스스로 동냥을 하겠다고 나서는 무기력하고 쓸개빠진 백성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원조》에 우리들자신과 후손의 운명과 장래를 맡길수야 없지 않겠는가.》

《지금은 외국에 의존해오던 라성에서 탈피하여 경제적으로 자립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경제적자립이 없는 곳에 정치적독립이 없고 자주자립정신이 없는 곳에 기아해방은 없다.》 이것은 그대로 자주를 지향하는 민심의 목소리들이었다.

자주에 대한 지향은 자주통일 흐름으로 이어졌다.

남조선의 진보적인 각계층들은 《지배층들은 통일문제를 자주적인 립장에서 말하는것을 거슬러 샅아왔고 이 급기에 거슬

리던 비애국, 불온사상, 용공주의의 악랄한 용어로 대접해왔다. 어쨌서 우리는 민족적, 국가적 자주성과 주체성에 립각한 통일문제관련 발언이 금기되어야 한다는것인지 리해할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파쇼당의 《외세의존통일론》을 규탄하였다. 그러면서 《유엔을 믿을수 없고 외세를 또한 믿을수 없다 면 결론은 명백하다. 이제는 자신밖에 믿을것이 없다. 우리가 남의 눈치만 살피고 남의 호주머니에만 기대를 거는 사대적, 구결적근성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에게 통일과 평화라는 선물은 주어지지 않을것이다.》, 《우리의 통일은 기어코 자를결하지 않고서는 이 민족의 집날은 없다.》라는 주장들이 터져나왔다.

민족의 자주를 떠나 조국통일을 기대할수 없다는것이 군사파쇼독재에 항거해나선 남조선인민들이 찾은 진리였다.

본사기자 강무성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여성대행진 (2015년)



《제국주의자 및 민족반역자 화형식》을 진행하는 남조선대학생들 (1964년 3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개막행사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백전백승 조선로동당》, 《아리랑》 등 세계를 경탄시킨 기념비적작들과 더불어 사람들속에 널리 알려진 김수조.

그는 공화국공민으로서 반을수 있는 명예, 누릴수 있는 행복을 다 누리 북받은 인간이었다.

그무렵 아버지는 품팔이군이었고 어머니는 싹빨래와 샅바느질로 생계를 유지하고있었다. 그러나 그가 8살 나던 해에 아버지가 병으로 한참을 세상을 하직하였다.

울음울음 다섯아들중 셋째였던 김수조는 자식들을 먹여살리느라 죽을 고생 다하는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도맡아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야말로 가난과 고생을 속명으로 걸버리고 태어난 불우한 인생이었다.

그가 중학교에 들어간 이듬해에 나라가 해방되었다. 서울의 골목마다에 차고넘치는 《해방만세!》의 환호소리는 김수조의 가슴을 앞날에 대한 꿈과 랑만으로 세차게 부풀게 하였다.

그러나 외국군대가 점령한 남조선에서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고 격정으로 들끓던 해방의 환희는 곧 슬픔과 분노로 변해 버리고말았다.

삼천리강토가 두동강나고 반만년세월 혈연을 맺고 살아가는 겨레의 마음까지 두동강이 난것이다.

당시 삼급생들로부터 김수조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항일무장투쟁과 새 조국건설로선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나라없던 지난날 피눈물나는 생활을 겪을대로 겪어온 그에게 있어서 인민의 나라로 떠오르고있는 북은 정녕 희망의 등대가 아닐수 없었다.

정의에 굽고 리상에 불타는 열혈의 인간이라면 누구

나 투쟁의 대오에 서게 하였다.

김수조도 범법적인 《5.10단선》을 반대하는 투쟁을 비롯하여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의로운 투쟁대오에 합세하였다.

그날에 여러차례나 옥고를 치르었던 민족을 위하는 그의 애국의 마음은 더욱 굳세어졌다.

1950년 전쟁이 일어나고 서울이 해방되자 그는 남조선무용가동맹전선부장으로 임명되어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의 위대성에 대하여, 공화국정치적 정당성과 우월성에 대하여 해설선전하였다. 그리고 의용군에 탄원해나선 수많은 예술인들을 적극 고무해주고 선위문제를 조직하여 내보내는 사업도 활발히 벌려나갔다.

전쟁전 서울의 한 무용원구소에 다녔던 그는 그후 의용군에 탄원하여 만평과 함께 전선지구경비사령부협주단(당시)에 들어갔다.

그때부터 그는 진격하는 인민군부대들을 따라 안동, 포항계선까지 나가 전선위문공연을 보장하였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시작되자 그는 늘씬 어머니와 작별하고 결연히 북쪽길에 올랐다. 쓰라린 지난날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길은 오직 하나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민족의 아버지로 모시고 따르는 길뿐이라는것을 뼈저리게 절감했기때문이었다.

전쟁이 끝나자 그는 당시 국립예술극장의 무용배우로 일하였다.

그날에 그는 공화국의 예술단성원으로 여러 나라들에 파견되어 주체조선의 예술과 승리의 기상을 떨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던 주체 47(1958)년 9월 어느날 김수조는 꿈결에도 뵈고싶던 아버지수령님을 처음으로 만나뵈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그날 동평양체육관(당시)에서는 아버지수령님을 올리는 어머니수령님을 올리는 행위를 가슴부듯하게 펼쳐보인 종합예술공연을 보여주신 아버지수령님께서 창작가들을 만나주신 자리에서 무용단 부단장으로 무용창작에 참가한 김수조의 손도 잡아주시었다. 그러시고는 이제의 신인창작가들이 이렇게 자랐으니 마음이 놓인다고, 해방후 예술인부대를 꾸리기 위하여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예술인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묶어세웠는데 이제는 3천명이라는 대부대로 되었다고 못내 만족해 하시였다.

그후 아버지수령님께서 김수조에게 자신의 존함으로 된 표창장과 사랑의 선물도 보내주시었다.

김수조의 가슴은 격정과 환희, 보답의 일념으로 한없이 출렁일었다.

주체51(1962)년 11월 30일 아버지수령님께서 음악무용극 《밝은 태양아래》를 보여주시고 김수조를 비롯한 창작가들을 또다시 만나주시었다.

정중히 인사를 올리는 그의 손을 잡아주시며 수고가 많았다고 다정히 어깨를 두드려주시는 수령님께서 이 동무가 얼마전에 창작한 무용 《관개수는 흐른다》가 중공을 방문하는 우리 예술단의 공연종목에서 제일 인기가 있다고 한다는데 이번엔 음악무용극 《밝은 태양아래》에서 무용 《홍수와 싸우는 청년들》을 또 잘 만

들었다고, 이 동무는 《물박사》라고 하시며 환히 웃으시였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음악무용극 《밝은 태양아래》에 인민상을 수여할것을 제의하시며 김수조를 비롯한 창조성원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그 일을 회상할 때마다 김수조는 안해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고 한다.

《우리는 아버지수령님 한분만 믿고 평양으로 왔는데 오늘 우리의 선택이 천백번 옳았다는걸 다시금 느꼈소.》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의해 김수조는 그후 국립예술극장(당시) 무용단 단장으로, 국립무용극장장 국립가무단(당시)의 예술부총장으로 사업하였다.

김수조가 공화국에서 예술인으로서 성공한 삶을 누릴수 있었는데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따사로운 손길도 어려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가극 《밀림아 이야기하라》와 《금강산의 노래》를 창조하실 때에는 그를 창조지도일군으로 내세워주시였다고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개폐막행사의 최종시연회를 보아주시고는 7만명을 헤아리는 인원들을 한사람같이 움직이게 한다는것이 쉬운일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이제에는 그에게 어떤 큰일을 맡겨도 잘해낼것이라고 하시며 인민애를가장호를 수여하도록 배려해주시었다.

사실 그가 평양축전과 같은 큰 행사의 총연출을 담당해낼수 있었던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벌써 오래전부터 큰 규모의 국가적인 예술행사들의 연출을 맡겨주시고 경험과 기초를 쌓도록 결을결을 손잡아 이끌어 주셨기때문이었다.

그런데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를 물가이 불러주시고 일군들에게 이 동무가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의 개폐막행사를 총지휘

하였다.

이렇듯 제목으로부터 형상안, 작품의 음악적기둥을 세우는 문제, 민속무용의 춤가락들과 의상, 소도구들이 이르기까지 일일이 보아주시며 세심한 지도를 주시고 봉화대에 불을 지피는 방식으로부터 레이자조명과 특대형영화화면 등 최신과학기술을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까지 명철한 가르침을 주시였다.

정년 세인을 경탄케 한 대결작의 창작가, 총연출가는 다름아닌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그런데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모든 공로를 김수조를 비롯한 창조성원들에게 돌려주시면서 그가 긴강한 몸으로 일하도록 외국 병원에서 치료도 받게 해주시고 창조사업을 끝낸 다음에야 일흔번째 생일을 쇠겠다는 그에게 민족의 풍습대로 쇠어야 한다고 하시며 은정어린 생일상도 보내주시었다.

마침내 세계적인 판식속에서 온 나라 인민의 마음을 격동시키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 대성황리에 펼쳐지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작품창조에 참가한 수많은 창작가들과 총연출자들에게 높은 급의 국가표창과 함께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시였으며 김수조에게는 김일성상을 수여하도록 더없는 믿음과 영광을 안겨주시었다.

가난한 품팔이군의 자식으로 태어난 그는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들의 손길과 은은한 사랑이 다아는 김일성장군님, 공화국영웅, 인민예술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서 가장 값진 삶을 누리였다.

그가 일흔아홉해의 생을 마치고 우리 곁을 떠났을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애시를 금치 못해하시며 고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주시였다.

한번밖에 없는 인생을 후회없이, 값지게 사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김수조의 긍지높은 한생은 그에 대한 명백한 대답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공화국의 품에 안겨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총연출가



김수조선생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한 장면

광주의 정신은 오늘도 살아있다

— 광주인민봉기 40년을 맞으며 —

남조선에서 광주인민봉기가 일어난 때로부터 어언 40년이 되어온다.

강산이 변했다는 10년이 네번이나 바뀌었지만 오늘도 겨레의 뇌리에 불의와 폭력에 맞서 죽음을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싸우던 광주 시민들의 항쟁 모습이 생생히 새겨져 있다.

광주인민봉기는 외세의 식민지 지배와 군사파쇼통치를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인 항쟁이었다.

1979년 《유신》 독재자인 박정희가 비참한 종말을 고한 이후 남조선인민들은 《비상계엄령》의 해제 등 민주주의 실현을 강력히 요구해나섰다.

그러나 외세의 막후조종 밑에 12.12속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군사파쇼당은 남조선인민들의 높아가는 민주화 열망을 총칼로 짓누르며 사회전반에 무시무시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1980년 5월 17일 전두환일당은 모든 집회와 일체 정치활동의 금지, 모든 대학들의 폐쇄, 출판보도물에 대한 엄격한 사전검열체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엄포고-10》호를 공포하였다. 그리고 5월 17일 밤과 18일 새벽 수많은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주인사들을 체포하였다. 5.17파쇼폭거는 남조선에서 새로운 독재통치의 서막을 알리는 일대 파쇼판악이었다.

남조선인민들의 민주화 저항에 5.17파쇼폭거로 도전해나선 군사파쇼들의 망동에 격분한 광주의 청년학생들과 시민들은 1980년 5월 18일 대중적인 봉기를 일으켰다. 봉기자들은 《비상계엄령을 해제하라》, 《유신체제를 철폐하라》, 《민주정부를 수립》, 《양키를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중무장한 《계엄군》과 맞서 과감한 투쟁을 벌여왔다.

도시가 군사파쇼당의 폭압력에 의해 결점이 포위되고 무차별적인 공세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봉기자들은 굴함없이 싸워 10일동안이나 도시를 사수하였다.

당시 광주인민봉기를 진압하기 위하여 군사파쇼당 당이 감행한 살인만행은 세상 그 어디에도 찾아볼수 없는 치명적인 만행이었다. 살인귀들은 곧바로 봉기자들의 머리를 마구 내리치고 임신부의 배를 갈라 태아를 내용탕이했으며 쓰러진 시민들을 짐짝 끌듯 거리바닥으로 질질 끌고갔다. 지어

평화적군중을 향해 무차별적인 사격을 가하였으며 직승기에서 기관총사격을 가하는 천인공노할짓도 하였다.

이로 하여 민주의 함성드높던 광주는 삼시에 인민들이 흘리는 피로 강물을 이루었다.

당시 세계의 언론들은 광주를 《피의 목욕탕》, 《망령만이 배회하는 도시》로 묘사하며 군사파쇼당의 야수적인 살인행위를 폭로규탄하였다.

외세의 식민지파쇼통치를 밀부리쳐 뒤흔든 광주인민봉기는 불의에 굴하지 않고 견결히 맞서싸우는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굳센 기상을 시위하고 남조선인민운동을 더욱 즐기차게 떠밀어주는 기폭제로 되었다.

광주인민봉기는 그 후 1987년 6월민주항쟁으로 이어지고 새 세기에 들어와 반미초월시위로 발전하였으며 수년전에는 남조선 전 지역적인 대중적초월항쟁으로 번져져 박근혜독재 《정권》의 몰락을 가져왔다.

하지만 아직도 남조선에서는 자주, 민주, 통일을 외치던 광주인민봉기자들의 넋원이 실현되지 못하였으며 외세굴종과 동족대결의 어

러운 력사가 반복되고 있다. 봉기가 있는 후 40년이 되어오도록 광주대학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고 살인자들이 머리를 쳐두고 거리를 활보하고있는 것이 바로 남조선사회의 실상이다.

이렇게 된다는 군사파쇼도당의 후예들이 정계무대에서 활개치면서 인민들의 정당한 요구실현을 음모로 양으로 계속 방해해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패들이 《국회》에 국무보수론객을 끌어들이어 《5.18진상규명대국민공청회》라는것을 벌려놓고 광주인민봉기를 《북의 특수부대에 의한 폭동》으로, 봉기희생자유가족들을 《중북파괴가 만든 괴물집단》으로 모독하는 망언들을 늘어놓아 남조선인민들의 분노를 자아낸것은 그 단적인 실례이다.

지난 4월에도 《미래통합당》 소속의 여파는 《광주》는 80년대 유산에 사로잡힌 도시, 생산대신 제사에 매달리는 도시, 과거 비극의 기념비가 젊은이들의 취업과 출산을 가로막는 도시》라는 망언을 쫓겨 유가족들을 비

롯한 남조선인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런 살인공범집단이 아직도 제1야당형세를 하며 정치를 어지럽히고있으니 광주 시민들의 피로 두손을 적신 살인악마 전두환역도가 《회고록》이라는데서 《발포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다못해 제가 《5.18의 희생자》인듯 뻔뻔스러운 너두리까지 늘어놓는 기이한 풍경도 펼쳐진것이다. 얼마전에도 인강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 참가하여 자기의 범죄를 한사코 부인하다 못해 재판기간 끄덕끄덕 졸아 각계의 중요분노를 자아내었다.

지금 광주 시민들을 비롯한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은 광주인민봉기 40년이 되어오는 것과 관련하여 대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고 살인자들을 처벌할것을 주장하면서 투쟁열의를 드높이고있다.

남조선에서 광주인민봉기는 한갓 지나간 력사속의 항쟁이 아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항쟁이고 그날의 투쟁정신은 지금도 살아 남조선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고무추동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주광일

《항쟁자들의 뜻과 념원을 되새기자!》

남조선에서 광주인민봉기 40년을 맞으며 대학살만행의 진상규명과 범죄자처벌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가고있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와 5.18기념재단 등 5.18관련단체들은 항쟁열사들의 유해가 안장되어있는 묘지에서 광주인민봉기 40년기념식을 개최하겠다고 하면서 그 준비를 다그치고있다. 그러나 하면 《국립대전현충원》에 걸려있는 광주대학살의 주범인 전두환역도의 글씨체로 제작된 현판과 《현충탑현시비》를 바

른 시일안에 철거하고 《전사자》로 외곽표기되어있는 《계엄군》 사망자 20여명의 묘비를 시급히 정정할것을 남조선당국에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또한 5.18관련단체들과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를 비롯한 각계층 단체들은 《항쟁자들의 뜻과 념원을 되새기자!》고 하면서 대학살만행의 진상규명과 광주학살의 주범인 전두환역도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이와 함께 군부패당이 광주인민봉기 당시 대학살만행의 진

상을 가리우려고 1 000여명의 언론인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한 새로운 자료를 폭로하면서 주모자처벌과 언론탄압진상규명을 요구해나서고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을 비롯한 민주개혁정당들은 《파렴치한 전두환은 력사의 죄인으로 기록될것》이라고 하면서 5.18광주민주화운동 40년을 계기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광주대학살범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그 주범인 전두환과 공범자들을 엄벌에 처할것을 주장해나서고있다.

광주학살주범을 심판하기 위한 행동 전개

남조선인터넷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대학생진보연합이 8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광주학살주범을 심판하기 위한 행동에 대학생들이 앞장설것이라고 밝혔다.

발언자들은 광주학살만행의 주범 전두환과 그 공범세력이 여전히 처벌받지 않고 있다고 말하였다.

역도가 유가족들과 국민앞에 무릎꿇고 사회할 때까지 행동을 멈추지 않을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이어 선포문이 랑독되었다.

선포문은 민간인학살, 발

포명령, 직승기사격 등 광주학살만행의 진상이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민중을 무참히 학살하고도 사죄나 반성이 없는 살인자 전두환을 구속하는것은 광주봉기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중요한 문제라고 선포문은 주장하였다.

선포문은 국민의 뜻을 거

스르려는 광주학살주범 전두환은 반드시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역도를 엄벌에 처하기 위한 행동에 대학생들이 앞장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선포문방독이 끝난 후 최수복을 입은 전두환역도에게 수갑을 채워 구속하는 상징의식이 진행되었다.

본사기자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항쟁에 떨쳐나선 광주시민들(1980년 5월)



광주의 투쟁정신을 이어 박근혜독재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대규모초월시위에 떨쳐나선 광주시민들(2016년 11월)



광주학살주범의 처벌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2020년 5월)

무분별한 군사적망동

남조선군부가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대결기도를 계속 드러내놓고 있다.

이미 알려진것처럼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은 지난 4월 중순부터 육군 3사단의 생방훈련, 해병대의 합동상륙훈련 등을 진행하였으며 수만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전술, 사격, 반화학 등 각종 단독훈련을 연속 벌려놓고있다.

지난 6일에도 남조선군부는 많은 전투기들과 합선들을 내몰아 지난 시기 북남쟁방사이에서 군사적충돌이 발생하였던 조선서해 최대접점지역의 공중과 해상에서 합동군사연습을 벌여왔다. 그리고는 합동연습의 목적이 《북의 화력 및 기습 《도발》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며 《적》의 《도발》원점을 타격하고 지원세력을 격퇴하는데 있다》고 떠들어댔다.

한편 미국의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비밀리에 끌어들인데 이어 육군과 해군의 무력증강과 전투기술장비의 개발 및 실전배치준비를 언론을 통해 공

개하면서 앞으로도 첨단살인무장장비개발과 도입에 더욱 박차를 가할 흉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다.

남조선군부는 오는 8월 《림팩》합동군사연습에 참가하기로 결정하는 등 외세의 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할기도도 드러내놓고있다.

이것은 조선반도평화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이며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특히 서해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데 대해 온 반민앞에 확약한 북남군사협약에 대한 전면위반이고 로골적인 배신행위가 아닐수 없다.

동족을 겨냥한 군사적대결책동이 가득이나 긴장한 조선반도의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고 전쟁위험을 증대시킨다는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공화국에 대한 무분별한 군사적대결책동에 계속 매여달리고있는 남조선군부의 흉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두말할것없이 동족과 끝까지 군사적으로 대결해보자는것이다.

불을 줄기는자는 불에 타 죽기마련이다.

제 죽을줄 모르고 물뭍 범불명법하는 남조선군부의 무분별한 군사적망동이 초래할것은 수치스러운 자멸뿐이다.

본사기자 김영진

복합에 들어와 남조선에서 적폐청산을 위한 각계층의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다.

최근 민주민주당과 국민주권련대, 민주인문시민연합, 《한국청년련대》를 비롯한 진보경향의 정당들과 각계층단체들은 련일 성명발표, 기자회견 등을 통해 현 당국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의 명령인 보수적폐청산을 밀고나가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과거에 파쇼통치와 인권의 명령인 보수적폐청산을 밀고나가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추진하라는 민심의 반영이다.》고 하면서 보수적폐청산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다. 한편 남조선의 각 지역들에서는 반보수련대활동들이 다양하게 전개되고있다.

《세월》호참사유가족들과 《4.16련대》, 《국민주권련대》,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를 비롯한 각계층 단체들은 광주학살의 주범인 전두환역도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가 하면 군부패당이 광주인민봉기당시 대학살만행의 진상을 가리우

기 위해 1 000여명의 언론인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한 새로운 자료들을 폭로하면서 주모자처벌과 언론탄압진상규명을 요구해나서고 있다. 《한겨레》, 《민중일보》, 《한겨레》, 《민중일보》를 비롯한 진보적인 언론들은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악성전염병사태까지 정

결, 반인민적악당과 파쇼통치로 천추에 씻을수 없는 대죄악을 저지른 회색의 범죄집단, 강대무리인 보수역적무리들을 단호히 징벌하려는 남조선민심의 결연한 의지의 발현이다.

지난 시기 남조선인민들을 개, 돼지처럼 여기며 그들에게 온갖 모욕과 멸시, 파쇼공안탄압을 들먹이던 보수세력들에 대한 각계층의 원한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남조선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회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 4.3특별법》)의 개정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고 울려나오고있다.

본사기자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고 울려나오고있다.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유가족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 불법적인 군사재판의 무효화를 주장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다.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유가족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 불법적인 군사재판의 무효화를 주장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다.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본사기자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유가족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 불법적인 군사재판의 무효화를 주장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다.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유가족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 불법적인 군사재판의 무효화를 주장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다.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본사기자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유가족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 불법적인 군사재판의 무효화를 주장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다.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유가족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 불법적인 군사재판의 무효화를 주장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다.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본사기자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유가족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 불법적인 군사재판의 무효화를 주장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다.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유가족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 불법적인 군사재판의 무효화를 주장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다.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본사기자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유가족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 불법적인 군사재판의 무효화를 주장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다.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유가족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 불법적인 군사재판의 무효화를 주장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다.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본사기자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조속한 처리 촉구

관심을 끄는 기능성특색건축장식재료

김일성종합대학의 연구자들이 개발한 새로운 기능성특색건축장식재료가 사용자들속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마감장식을 잘하는것은 건축물의 품위를 높이고 주변의 풍치를 돋우며 보다 문명화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다양화, 다중화, 다색화, 다기

능화된 건축재료들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있으며 그 성과들이 건설현장에 광범히 리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년간 사람의 건강에 부정적영향이 없고 친환경적인 특색건축재료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날로 높아감에 따라 첨단기술이 활용된 조각재료, 장식재료들을 만들기 위한 시도가 적극화되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의 연구자들은 건축물의 내외부마감장식에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부각장식용재료를 국내실정에 맞게 만들어내기 위한 탐구전을 힘있게 벌리었다.

지난 시기 장식재료로 많이 리용되었던 석고는 가공하기 쉽고 제품생산성이 높은 우점이 있으나 력학적성기가 낮아 제품윤반 및 시공과정에 손상이 많고 습기에

견디지 못하는 결함을 가지고있다.

이러한 석고의 기술적특성을 개선하여 새로운 장식재료를 만들어낼 높은 목표밑에 이들은 제기되는 과학기술문제들을 집체적지혜를 합쳐가며 하나하나 해결해나갔다.

이 과정에 이곳 연구집단은 습기견딜성을 비롯한 기술적특성지표들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된 기능성특색건

축장식재료를 만들어 내놓았다.

새로 만든 기능성특색건축장식재료는 미세한 모양도 생동하게 나타낼수 있어 부각장식효과가 매우 좋다.

또한 시공범위가 넓고 오래동안 보존할수 있을뿐만아니라 사람의 건강에 리로운 작용을 하는 독특한 기능도 가지고있다.

건축물의 조형성과 예술성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는 기능성특색건축장식재료는 지난해에 진행된 전국마감장재부문 과학기술성과전람회-2019에서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본사기자 홍병식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하여

평양교원대학에서



공화국의 평양교원대학에서 세계 교육발전추세에 맞게 교육용로봇을 자체의 힘으로 연구제작하고 그 성능을 부단히 갱신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었다.

화상인식기술과 음성인식기술을 비롯한 인공지능기술이 도입된 교육용로봇은 학생들의 교육에서 높은 교수효과를 얻을수 있게 하는 실용성 있는 교수수단이다.

교육용로봇은 학습자와 서로 언어적수단에 의한 의사교환을 진행하면서 그들의 지능을 개발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교육(주산교육, 영어교육 등)을 줄수 있으며 버거움을 발달시키는 종합교육에도 이바지할수 있다.

교육용로봇에 대한 선행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평양교원대학의 교육자들은 로봇의 핵심부를 자체의 실정에 맞게 연구 완성하고 어린이지능발달에 필요한 교육지원프로그램도 개발해냄으로써 마침내 교육용로봇을 제작하는데 성공하였다.

평양교원대학에서는 교원과 학생들의 화상 및 음성용 보다 정확히 인식하고 제때에 교감을 진행할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더욱 갱신하기 위한 사업 등 교육용로봇의 실용성과 효과성을 보다 높이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리었다.

본사기자

민족음식 - 썩떡

썩떡은 우리 선조들이 오랜전부터 해먹어온 고유한 민족음식의 하나이다.

썩떡은 썩에 난알가루를 섞어 만든 떡이다.

해마다 5월이 오면 우리 선조들은 햇썩을 뜯어다 썩떡을 만들어 먹었다.

썩떡을 만드는데는 흰쌀가루, 밀가루, 강냉이가루 등 여러가지 난알가루를 쓸수 있다.

썩떡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썩을 끓는 물에 중조와 함께 두고 체친다.

중조를 두고 썩을 데치면 색깔이 곱게 된다.

데친 썩을 하루정도 물에 담가놓고 쓴맛을 우려낸다.

쓴맛을 우려낸 썩을 물기를 꼭 짜서 절구에 짓찧어 놓는다.

다음으로 쌀가루에 소금을 두고 끓는 물로 익반죽하여 반데기를 빚는다.

이것을 찜솥에서 찜낸다.

찌낸 반데기를 치대면서 뜨거운 김이 쫄 날아오면 찜떡은 썩을 넣고 다시 잘 치대어 절편모양으로 만든 다음 기름을 발라 그릇에 보기 좋게 담는다.

썩으로는 절편뿐아니라 꼬리떡도 만들고 송편도 빚을수 있다.

팔소를 넣은 썩떡은 대단히 인기있는 음식이다.

말린 썩을 가지고도 떡을 만들수 있다.

썩떡은 그 맛과 향기가 특이할뿐아니라 사람들의 건강에도 좋다.

본사기자



썩떡

사화

우연한 기적 (2)

글 권영희, 그림 채대성

하면장 아들은 주저주저하며 방안으로 들어왔다. 「너희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편지라도 가지고왔느냐?」

김진사가 부드러운 음성으로 물으니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아니올시다. 제가 아버님도 모르시게 찾아뵈울 생각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는 한숨을 한번 크게 쉬고서 말을 이었다.

「여쭙기는 려치없습니다만 돈 삼천냥만 돌려주시면 저희 집이 멸문지화를 면하겠습니까?」

멸문지화란 말에 깜짝 놀란 김진사는 「무어, 멸문지화?!」 하고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

하면장 아들의 이야기는 이러하였다.

하면장은 면장을 하면 생기는것이 옳이라고 생각하여 퇴물을 먹이고 그 자리를 얻었다. 그런데 돈을 벌기는커녕 인당 땅까지마져 다 팔고 식구들도 먹여살릴 길이 없게 되었다. 이제저래 곤궁하게 된 그는 일확천금의 꿈을 꾸며 공금을 두기에 밀어넣었고 그것이 잘 맞지 않아 마침내 삼천냥의 구멍을 내게 되었다.

공금을 횡령한것이 드러나는 날에는 필연코 옥에 갇히게 될것이고 온 식구들은 다 흩어져야 될것이니 미상

불 큰일이였다.

하면장이 면내에서 그 많은 돈을 번듯할만 한 집은 김진사내부에 없었다. 그러니 전에도 종종 려치없는 말을 했으니 이제 또 그런 말을 어찌하랴!

침식을 전폐하달라싶이 하고 고인하던 하면장은 어떻게 하든 이 일을 수습하리라 결심하고 일어났다.

그러하여 그는 아들 순욱을 불러앉혀놓고 거액의 공금을 쓴 사실을 이야기한 후에 자기의 속생각을 터놓았다.

「예비로서 네게 이런 말을 하기는 차마 못할것이다마는 사정이 하두 절박하니 어찌겠느냐. 너도 알다싶이 김진사와 나는 가까운 사이고 또 그 많은 돈을 돌려달라고 해보아라. 그러면 자식이 예비를 생각하는 그 정성에 감동되어 김진사가 응할수 있을게다. 네가 집안을 생각해서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

순욱은 이 말을 듣고 앞이 캄캄해지는것을 느꼈다. 그는 나이 열이홉이 되도록 이런 일을 한 일이 없고 또 그토록 많은 돈을 돌려달라고 김진사에게 말할 용기도 나지 않았다. 그러나 생각해보

음악은 신비할 정도로 인간의 지능을 개발시킨다.

음악은 몸안에서 피순환과 신경세포의 흥분을 조절함으로써 기억력을 높여준다.

악기를 다루면 원손을 많이 쓰게 되고 오른쪽 뇌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므로 왼쪽과 오른쪽 뇌의 지능균형이 새로운 높이로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음악은 인류 지혜의 보물고기를 개발하는 수학, 물리학과 같은 열쇠로 보고있다.

한편 음악은 사람의 건강에도 아주 좋다. 만족감을 주는 음악선율은 심장의 수축력을 강화하고 혈압을 정상화한다. 그러므로 음악을 통한 정신피로회복이나 병치료를 하는데 거기에 밝고 탁월적인 선율을 리용하게 된다.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연주 는 신경계통을 안정시키고 클루트연주는 긴장성을 완

화시키며 멜로디주는 심장을 보호한다고 한다.

음악에 쓰이는 12개 음은 몸의 12개의 신경계통과 조화롭게 결부되면서 유기체가 진동상태에 들어가게 한다. 이것이 바로 공진효과이다.

이 공진효과의 결과면역계통이 세지고 물질대사가 개선되며 회복 및 환과과정은 적극적으로 진행되게 된다. 그리하여 음악을 들으면 뇌력이 높아지게 되고 건강이 빨리 회복될수 있게 된다.

저녁에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하루의 피곤이 가뭇없이 사라지고 기분나쁜일, 잡념이 없어질뿐아니라 마음이 안정되어 머리가 가벼워지게 되는데 이것은 세포의 활동과 관련된다.

이처럼 음악은 몸의 생리와 련결되어있다.

음악과 지능개발

본사기자

양파에는 인슐린처럼 혈당을 낮추는 류황화합물성분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물질은 인슐린과는 달리 혈당량이 정상이면 그아래로는 낮추어지지 않는것이 특징이다.

약을 늘 썼지만 혈당량이 낮아지지 않아 고심하던 한 환자가 의사의 권고대로 양파를 일상적으로 먹었는데 2달 지나서 혈당량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고 한다.

양파는 동맥경화증, 고혈압, 심근경색을 비롯한 순환기계통질병과 백내장 등 눈병을 미리 막는데도 좋고 한다.

두릅나무껍질과 뿌리껍질은 오래전부터 당뇨병, 간장병, 위염, 위궤양 등에 민간약으로 널리 써왔다.

두릅순에 들어있는 두릅지드라고 하는 물질은 뛰어난 당수용액작용을 한다

고 한다.

사포닌의 배당체종류에 속하는 두릅지드는 혈당값을 내려가게 하는것이 아니라 혈당의 흡수를 지연

시킨다.

그러므로 혈당이 급격히 높아지는것이 억제되고 인슐린의 과잉분비도 억제된다.

이것은 취장의 부담을 덜

어쩔뿐아니라 몸의 모든 장기와 기관의 세포대사작용을 막고 기능저하를 예방하는것으로 된다.

두릅순에 들어있는 에라토사이드를 추출하여 만든 알약은 먹는 사람들이 혈당값이 내려가고 몸가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대체로 쓰기 시작하여 1~2달 지나서부터 효과가 나타난다고 한다.

본사기자

당뇨병에 좋은 양파와 두릅

은 오래전부터 당뇨병, 간장병, 위염, 위궤양 등에 민간약으로 널리 써왔다.

두릅순에 들어있는 두릅지드라고 하는 물질은 뛰어난 당수용액작용을 한다

시킨다.

그러므로 혈당이 급격히 높아지는것이 억제되고 인슐린의 과잉분비도 억제된다.

이것은 취장의 부담을 덜

본사기자

유명한 성천담배의 유래

에 어느 한 지방의 토산약재로 담배가 올라왔는것은 우리 나라에서 담배가 16세기 말~17세기초에 제배되고있었다는것을 말해준다.

담배는 제배초기에 약초로 리용되었지만 점차 기호품으로 전환되어 17세기 말~18세기초에 이르러서는 적지 않은 지역들에서 제배되었다.

1618년에 편찬된 옛 문헌

여러 담배명산지도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이름높았던 곳은 평안도의 삼등과 성천지방이었다.

18세기말에 편찬된 《경도잡지》에는 《관서의 삼등, 성천 등지에서 생산되는 《금실담배》는 민간에서 《서초》라고 하는데 매우 진귀하게 여기는것이다.》라고 기록되어있다. 여기서 《금실담배》는 일을 썰면 금실갈기때문에 붙은 이름이며 《서초》라는것은 삼등, 성천이 서북지방이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성천담배는 다른 어떤 담배에도 비길데 없이 향기가 특이한것으로 하여 《성천향초》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졌다.

최근 공화국의 연구자들은 성천담배원종을 찾기 위한 연구사업을 벌려 끝내 성공하였다.

평안남도 성천군에서는 연구사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여러 적지에 성천담배원종을 전문으로 재배하는 포전을 꾸리고 담배일수확을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는 등 성천담배원종을 널리 증식시키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었다.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 소장 교수 박사 공명성

성천담배에 대한 조사가

에 온 손들이 모두 신랑이 잘 생겼다고 칭찬하니 송씨 집에서는 기뻐 어쩔줄 몰라 하였다.

사위가 별안간 몸이 불편하여 신랑을 꾸미지 못한것은 문제도 아니었다.

3일을 곱게 치른 후 신부를 데리고 김진사집으로 온 순욱은 바빠 뒤뚱으로 빠져나가 집으로 돌아왔다.

시집으로 와서 레물을 드리고난 날 밤, 신부는 너무도 뜻밖의 광경에 놀랐다.

신부가 두근거리는 가슴을 가가스로 누르며 신랑에 들어갔을 때 백년가약을 맺고 초례를 지낸 신랑은 간데 없고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흉측한 얼굴의 사나이가 병상에 누워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까무라칠 지경으로 놀라 서있는 신부에게 김진사는 팔자로 여겨달라고 사정사정 하였다.

김진사의 생각은 머느리를 데려다놓고 사정을 하면 초례까지 지냈으니 내가 어찌라 하였던것이다. 그러나 신부의 생각은 달랐다.

남편이 흉한 병자라는것은 오히려 큰 문제가 아니라 레를 갖추어 하늘에 맹세한 랑군이 따로 있게 되었으니 이것은 도의에 어긋나는것이 고 또 김진사의 말대로 한다면 그것은 시집간지 사흘만에 또 다른 랑군을 맞는것으로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며 신부는 온밤 잠들지 못하였다.

이튿날 아침 불이 꺼진듯 조용해진 김진사네 집은 사람사는 집 같지 않았다.

《새장구는 새것도 새장구, 낡은것도 새장구라고 하니 그건 또 무슨 리치냐?》

《그것은 북이 동쪽에 놓아도 북, 서쪽에 놓아도 북이 되는것과 같은 리치라 생각하옵시나.》

그러자 격해된 원은 다른 방법으로 시비를 결었다.

《창으로 창문을 썰러서 난것을 창구멍(창으로 썰려서 난 구멍)이라 하느냐, 창구멍(창문구멍)이라 하느냐?》

이번에도 소녀는 거침없이 대답하였다.

《원님은 눈으로 날 걸어가 사람의 얼굴에서 흐르는 물은 눈물이라고 하였잖나, 아니면 눈물이라고 하였잖나?》